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2

#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1~17)



An illustration depicting the birth of Jesus. On the left, Joseph, an older man with a grey beard and a white head covering with a green band, stands looking down. In the center, baby Jesus lies in a manger filled with yellow straw, wrapped in a blue cloth. On the right, Mary, a woman with long brown hair wearing a red headscarf and a red robe, kneels with her hands clasped in prayer, looking at the baby. The background is a simple grey gradient.

어느 날 로마제국의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어요.

“호적령? 이보게, 호적령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거리고 있나?”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내가 이 지역 이 집안 출신입니다~’  
정확히 등록을 하고 오라는 게야.”

**“아~ 그런데, 그걸 갑자기 왜 시키는 건가?”**

**“어휴 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이참에 인구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만큼 세금을 따박따박 거두어들이겠다~  
이거 아니겠나? 어휴, 먹고살기 바쁘는데  
언제 고향까지 다녀오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A soft, pastel-colored illustration depicting the birth of Jesus. On the left, Joseph, with a long grey beard and a white head covering, stands in a light blue robe. On the right, Mary, with long brown hair and a red headscarf, stands in a red robe with her hands clasped in prayer. In the center, the baby Jesus lies in a manger, wrapped in a blue cloth, with a yellow star visible in the background.

부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보게, 요셉. 자넨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다윗 왕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제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요.”

“아니,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먼 곳을 같이 간다고?”

**“혼자 남겨둘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어요.**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이동을 했고  
밤에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붙였어요.  
홀몸이 아닌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참고 견뎠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요, 요셉! 금방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놀란 요셉은 허겁지겁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여관이란 여관마다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빈 방 없수다! 돌아가시오!”**

**“그 호적령인지 뭔지 때문에  
남아 있는 방이 없다우...”**

야속하게도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소문하고 있는데  
한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빈 방은 없는데... 사정이 딱하군요.  
정 그렇다면  
요 뒤에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시겠소?”**

요셉은 당황했어요. 말들이 먹고 자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그것도 구세주가 되실 분을 낳는다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 지금 상황에 어떤 곳이든 감사해야죠...!  
저 곳으로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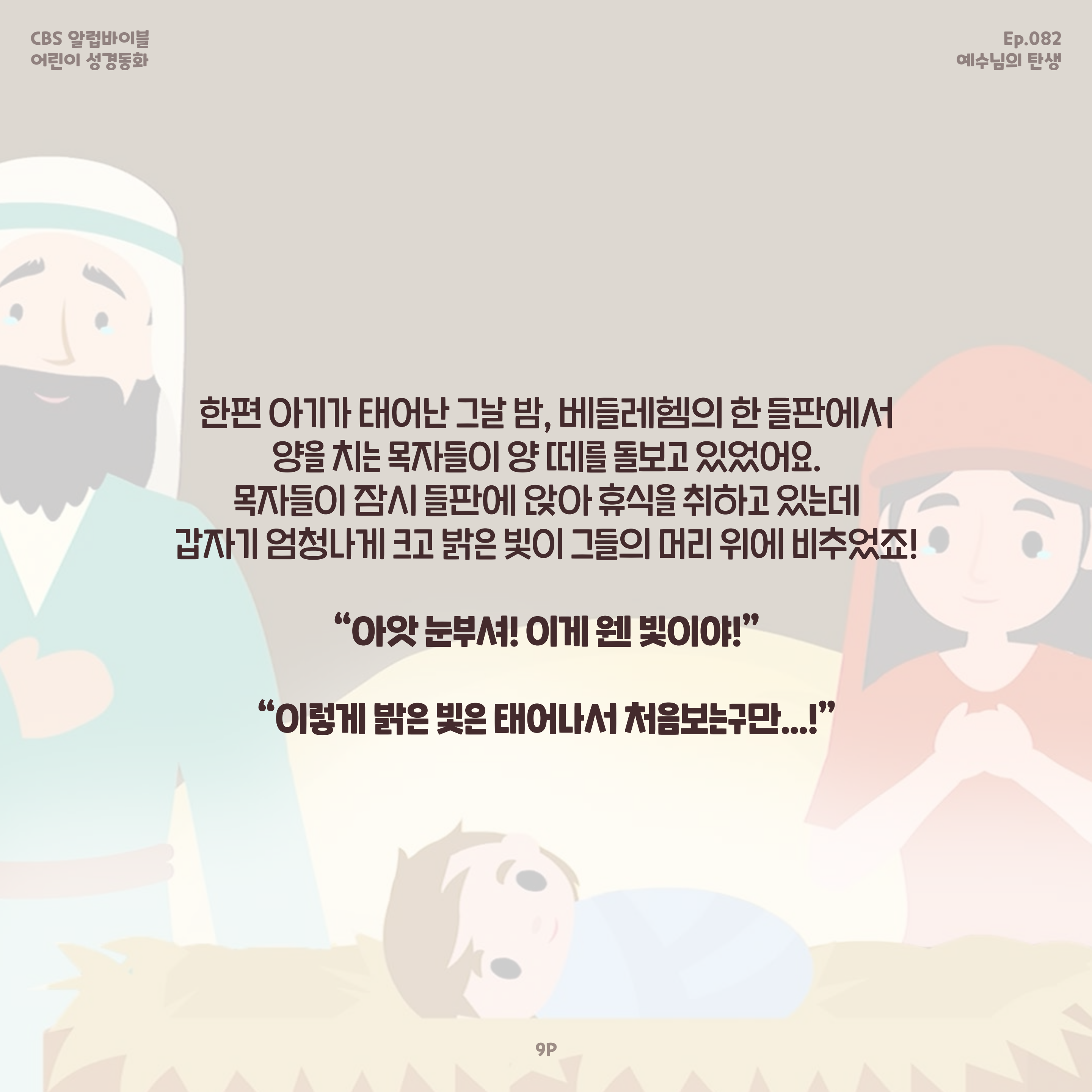


건초를 깔고 부랴부랴 정리해 봤지만  
마구간은 정말 누추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마리아가 몸을 누이고... 잠시 후!

“응애! 응애!”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비록 아기를 누일 요람조차 없어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 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잠시 들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밝은 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비추었죠!

“아앗 눈부셔! 이게 웬 빛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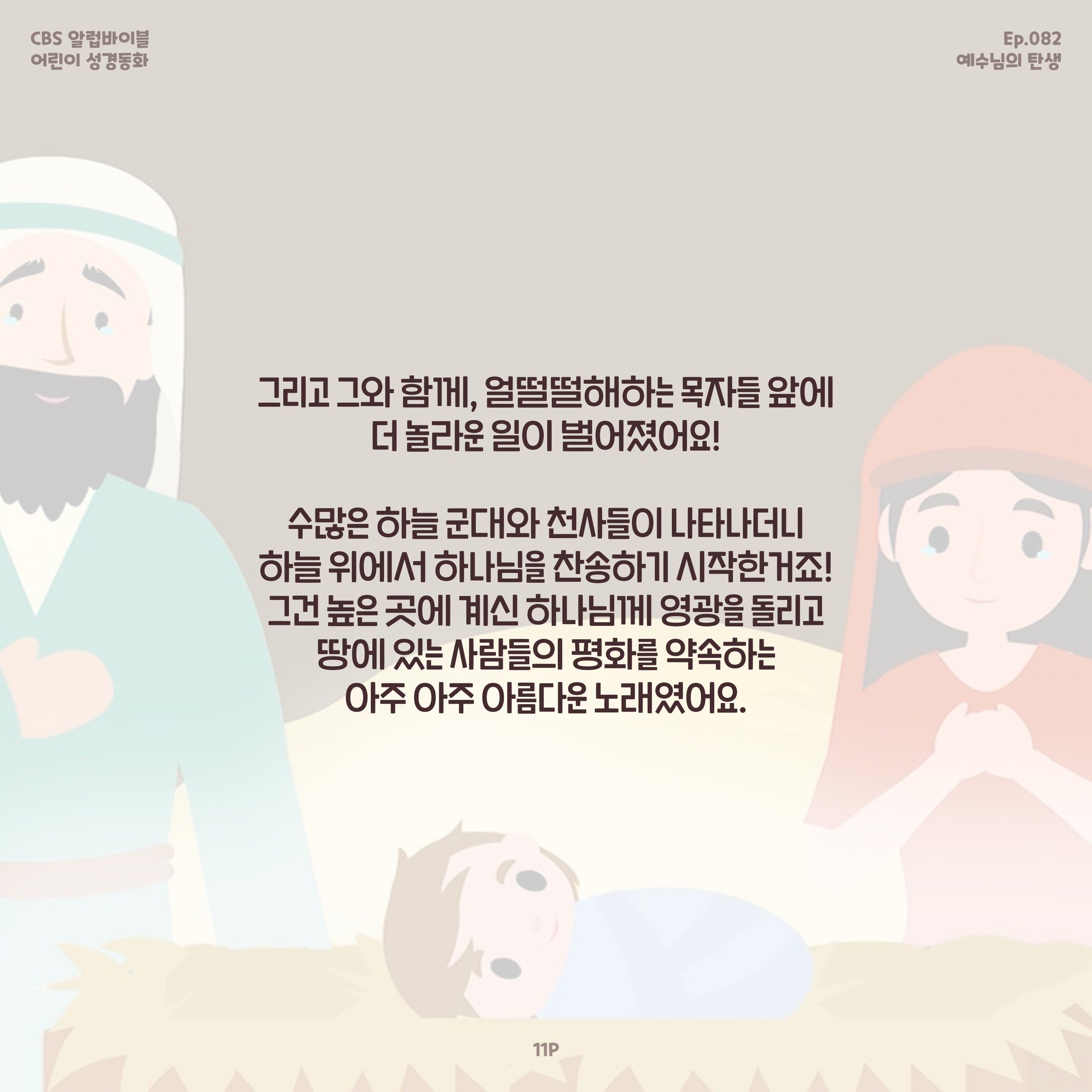
“이렇게 밝은 빛은 태어나서 처음보는구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라도 생기는 걸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빛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정말이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려워 말거라. 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단다.  
오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얼떨떨해하는 목자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거죠!  
그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약속하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잠시 후, 천사들이 사라지고.

**“맙소사, 내가 뭘 본 거지? 이 세상을 구해주실 분이.  
이 근방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런 대단한 분이...  
왜 말 먹이통에 누워계신 걸까...?”**

**“이보게들!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목자들은 헐레벌떡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어요.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  
마구간이란 마구간은 다 둘러보았죠.  
그리고 한 마구간 앞에 섰을 때

**“응애! 응애!”**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 아기가  
방금 태어난 아기입니까?”**

**“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정말이었군요..?”**



**“그다음엔 천사들이 단체로 나타나서  
찬송도 불렀다고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셉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목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조금 전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전에 천사가 일러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 약속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게 된 아기 예수!  
먼 옛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